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0년 표어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느 2:17, 엠 5:26-27)

十 행동 지침

- 1. 약속의 말씀 위에 갱신되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
- 3. 성경 권위와 충분성을 믿고 개인, 가정,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iseoulchurch.or.kr

"주를 찬양하고 신뢰하라"

예배순서

인도: 가족 중 어른

| | | |
|-------------|----------------|-----|
| 목도 | | 다함께 |
| 성시 | 시 133:1-3 | 인도자 |
| 찬송 | 589장 | 다함께 |
| 기도(또는 사도신경) | | 다함께 |
| 성경봉독 | 시편 33:1-5 | 인도자 |
| 메시지 | "주를 찬양하고 신뢰하라" | 인도자 |
| 찬송 | 559장 | 다함께 |
| 주기도문 | | 다함께 |

(시편 33:1-5)

- 1 너희 의인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 2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 3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 4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 5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니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총만하도다

추석

가족이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

오는 수요일부터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며 모처럼 한자리에서 만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추석.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족 주심을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전도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여기에 예배모범을 제시한다.

1. 무엇으로 찬양해야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열 줄 비파 즉 각종 악기와 각양 은사를 따라 찬송해야 합니다(느 12:27).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깊은 음으로, 높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높은 음으로, 넓은 은총을 받은 사람은 진폭이 넓은 음으로, 평범한 은혜를 받은 자는 중간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노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하는 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자신을 드리는 심정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향기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2.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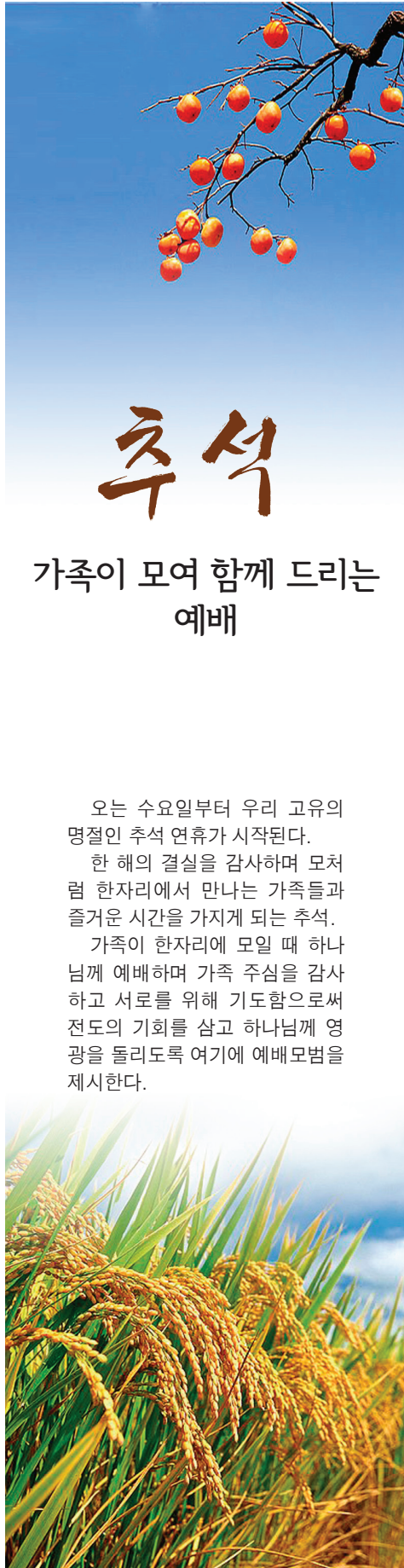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예배하고 그에게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의 일은 모두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사랑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매 맞는 날보다 평안한 날이 더 많은 것은 하나님 사랑의 승리입니다. 공의로우시나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같은 눈으로 그의 백성을 감찰하시며 그의 눈은 그를 경외하는 자를 살피십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온 자들이요 죄인이었으나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모든 좋은 것을 필요를 따라 넉넉히 주시니 우리는 큰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3.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우리는 옛부터 도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스펀전의 주석에는 대서양을 횡단하던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파선 지경에 이르렀으나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은 한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소년은 의아해하는 무리들에게 "이 배를 지휘하는 선장은 내 아버지며 나는 그를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추석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신뢰함으로 감사의 제목이 늘어가는 복을 모두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쁘고 은혜로운 추석이 되도록

-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시간 -

추석 명절이 3일 앞으로 다가와 전국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석은 그 어느 해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명절이 되었다.

올해 초부터 전 세계를 두려움과 위협에 빠뜨린 코로나19 사태와 지난 9월 전국을 휩쓸고 지나간 두 차례의 태풍으로 인해 전국민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였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가 드러야 할 올바른 예배를 망각하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더럽히고 온통 추한 것으로 가득차게 만들었다. 그 결과 코로나19 사태와 태풍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지혜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임을 여실히 보여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랄 것 없는 민족에게도 긍휼을 잊지 않고 베푸시어 추수할 곡식과 과실을 남겨 주셨다.

교회는 이번 추석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본지 1면에 추석 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추석 가족예배의 모범을 게재하였다.

코로나19 사태로 고향 방문을 못하거나 친척들과의 만남이 어려운 이번 추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도록 기도한다.

2020 사명자대회

Coram Deo 신앙을 회복케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 중인 사명자대회

2020. 10. 4(주) - 11. 22(주) (50일간)

2020 사명자대회가 다음 주로 다가왔다. 교회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코람데오(Coram Deo, 하나님 면전에서)의 신앙을 회복하는 2020 사명자대회가 다음 주 I·II·III부 예배 시 발대식을 시작으로 교회 설립 기념주일까지 50일간 계속된다.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며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앞드려 기도해야 한다.

특별히 이번 사명자대회 기간 중 가정·직장·교회에서 각자 작성한 시간에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한 자유키도회가 실시된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에서의 기도는 오전 10-12시, 오후 2-4시에만 가능하다. 방역당국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사전 신청하고 사명자대회 본부에서 확정 연락을 받은 성도들만 예정된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다. 사전신청 없이도 기도실 출입이 불가능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

자유키도 신청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었고, 각 가정에 순례자와 함께 발송되었다. 참여를 원하는 시간을 정하여 각 다락방장을 통해 교구 간사에게 신청해 주시면 온 성도가 함께 하는 '사명자대회 자유키도회'에 참여할 수 있다.

교회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0 사명자대회 공동기도문

전지 · 전능 · 무소부재하신 성삼위 하나님!

1. 비정상적 비대면 시대를 초래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코람데오(Coram Deo) 신앙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2.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3. 이 시대의 이상을 따르지 않고,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흰옷 입을 참 성도 되게 하옵소서.

4.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불신자와 소외된 이웃을 인도하는 나침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옵소서.

5.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어 세계복음화의 모퉁이 돌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6.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목회자를 보내주시어 목자 잃은 양들과 이 세대를 이끌어 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권정현·이옥수 전성희 이영재 유성택·권진순
이순례·김정훈·김재훈·김성훈·김진훈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기사 정정

지난 주 사명자대회 조직 중 진행분과 분과장을 오승민 집사에서 임우택 집사로 정정한다.

- 순례자 주최 - 사명자대회 주제 및 성구 캘리그래피 공모전

2020 사명자대회 일환으로 순례자에서는 '2020 사명자대회 주제 및 성구 캘리그래피 공모전'을 실시한다.

캘리그래피(Calligraphy)란 '손으로 그린 문자'라는 뜻으로 펜, 크레파스, 매직, 나뭇가지, 붓, 잉크, 먹, 물감, 타블릿, 아이패드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쓴 손글씨를 의미한다.

* 참가방법

1. 2020 사명자대회 주제 "코람데오(하나님 면전에서) 신앙을 회복케 하옵소서" 혹은 "코람데오(Coram Deo) 신앙을 회복케 하옵소서"를 손글씨로 작성
2. 2020 사명자대회 주제 성구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후 2:15)

* 제작방법

사이즈 : 최하 A4용지, 더 큰 사이즈도 가능하며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 손글씨로 작성하고 스캔을 받거나 사진을 찍어 순례자에 전달하면 된다. 손글씨 소재나 참가 갯수 또한 자유다.

* 제출

유은경 집사 (yoolulu@hanmail.net)

참가자들에게는 순례자에서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 기다린다.

코로나19와 명칭도 생소한 비대면 예배, 그리고 긴 장마와 잇단 태풍으로 유독 우리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은 2020년의 여름이 마침내 지나고 명절을 앞둔 초가을, 순례자는 오정수 장로님 내외분을 만나기 위해 베델하우스를 찾았다. 지난 9월 14일 서울지법으로부터 날아온 서울교회 재정비리 무혐의 판결 소식을 접하고 서울교회 성도는 누구도 예외없이 오정수 장로님의 얼굴을 떠올렸을 것이다. 지도자의 리더십 부재와 목사로서의 불성실과 부정적으로 인해 촉발된 서울교회 분쟁을 박노철 목사 측은 어이없게도 재정비리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갔고, 그 중심에는 오정수 장로님이 있었다. 지난 몇 년간 그가 겪은 심적 고통을 주님 외에 누가 헤아릴 수 있었을까? 과도한 스트레스와 번민과 갈등으로 마침내 뇌경색이라는 지병까지 얻었지만 오 장로님의 모습은 늘 평안해 보였다.

순례자는 오랜 비대면 예배로 인해 오랫동안 성도의 교제도 할 수 없는 터에 마침 재정비리 무혐의라는 반가운 판결 소식을 듣고 지면으로나마 오정수 장로님의 근황을 전한다.

순) 재정비리 무혐의 판결 소식을 듣고 심경이 어떠하셨는지요?

-교회 재정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정직했으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도 큰 동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없는 먼지를 찾아내는 세상이고 보니 무조건 법을 신뢰하고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교회 분쟁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게 되면 선명한 기억도 희미해지고 대담도 조리 있게 하지 못할 때가 허다합니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도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나의 믿음 없음을 곧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처음 의정부검찰에서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박노철 목사 측을 무고로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나라고 왜 저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망하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마침내 오늘과 같이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순) 요즘엔 어떻게 지내시나요?

교회 점심을 하기 위해 주말이면 십 수명의 권사님들이 북적대고 주일에는 새벽부터 조리를 하고 교회로 점심을 나르는 일을 봐주면서, 또 배추 수백 포기 교회 김장을 하고 된장도 담고, 또 각종 교회 모임으로 많은 성도들이 찾으면서 베델하우스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을 받는구나 싶어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로 주일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문전성시를 이루던 베델하우스도 한산해졌습니다. 교회도 못 가면서 한동안은 마음이 많이 쓸쓸했는데 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 가면서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또 평생 함께 해온 이영희 권사와는 새삼스럽게 신앙의 동지가 되어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 주곤 합니다.

순)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며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요소들이 환경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에는 저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셨나 봅니다.

나의 고향은 평안남도입니다. 집안의 누님들은 고향에서도 교회를 다녔지만 누님들은 내가 어리다고 교회를 데리고 다니지 않아 나는 피난을 나오고서야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아내 이영희 권사를 만났는데 그 때 이권사도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함께 충현교회를 섬기며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죽는 날까지 충현교회를 섬기게 될 줄 알았는데 1991년 뼈아

픈 사건을 통해 서울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충현교회 교인에서 서울교회 교인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서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달려오면서 두 번 다시 그런 아픔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낱 미물인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겠습니까?

충현교회에서는 그냥 손을 털고 나왔기에 서울교회 분쟁에 비하면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하는 중차대함에 고난과 고통은 그 당시의 몇 십배 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많이 돌아 보았고 왜? 무엇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두 번이나 당하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희미하게 알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이 그저 편안하게만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찌하면 지금의 나는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인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밖에는 달리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참된 신앙인으로서 오정수,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정수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새벽기도를 드리지 않는다고 뭐라는 사람도 없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눈치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절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묵묵히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순) 마지막으로 서울교회를 향한 소망은?

믿음에 정답은 없습니다.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어떤 면으로 서울교회는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스스로 좋은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졌고, 그 자부심은 우리를 부지불식간 교만한 자리로 내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짧지 않은 분쟁의 시간을 가지며 저 뿐만 아니라 서울교회 성도님들 모두 지난 고통의 시간 동안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울교회를 향한 나의 소망은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 속히 오시어 교회가 안정되고, 서울교회 성도 모두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본당에 올라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취재 및 정리 : 허숙 권사(편집부)



기도 가운데 만나 주시는 하나님



노제현 집사
(2020 사명자대회 차장)

우리 교회에는 매년 가을이면 30여 년을 이어온 특별한 기도 모임이 있으니 바로 사명자대회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두 날개와 같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무시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에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

니다. 그 영향이 교회에도 미쳐 교회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 교회 사정은 수년간 분란으로 많은 성도들이 영적, 육체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도 교회 분란도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종식과 교회 분란의 완벽한 승리를 위해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부르짖으라고 부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2020 성경암송대회

예선 : 11월 1일 (주일) 온라인
본선 : 11월 7일 (토) 교회

2020 성경암송대회가 코로나19 사태로 다음과 같이 진행 된다.

- * 암송범위: 시편 119편
- * 예선 : 11월 1일(주일) / 온라인 방식
- * 본선 : 11월 7일(토) 교회 / 대면 방식

이미 다수의 성도들이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준비를 못 한 성도들은 남은 한 달 동안 기도로 준비하여 많은 참여 바란다.

서울교회 에티켓



반드시 체온측정 후 입실



반드시 손 소독제로 소독 후 입실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동정

- 득녀: 9교구 안무현 성도, 김지영 성도 (안재선 집사, 문수자 권사 차남 가정)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속히 소멸되게 하시어, 경제가 회복되고 온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2. 11월 7일(토) 전교인 성경암송대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영적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3.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교회가 속히 회복되어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온라인 '학부모기도회'



온라인 학부모기도회가 매일 아침 성경말씀 1절을 묵상하며 아침을 시작하고 있다. 오전 9시에는 "3분의 기적" 말씀묵상, 밤 10시에는 서울교회와 자녀를 위한 공동기도문으로 각자 처소에서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수험생이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싶으신 성도들 중·고등부로 연락 바란다.

- 고등부 부장 : 정완진 집사 010-8889-9133
- 고등부 부감 : 한상욱 집사 010-8007-1506
최영경 권사 010-8618-6180
- 기도회 담당 : 박혜정 집사 010-8730-0452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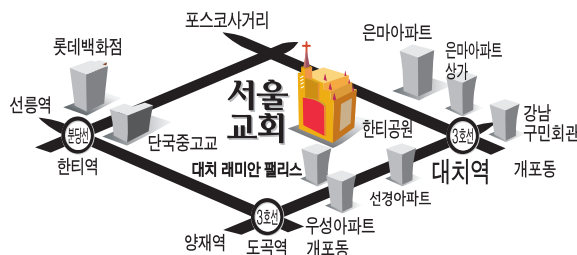
| 일 자 | 요일 | 1년 1독 | 확인 | 1년2독 | 확인 |
|-------|----|---------|----|-----------|----|
| 9월28일 | 월 | 마 16-18 | | 시 137-150 | |
| 9월29일 | 화 | 마 19-21 | | 잠 1-6 | |
| 9월30일 | 수 | 마 22-23 | | 잠 7-12 | |
| 10월1일 | 목 | 마 24-25 | | 잠 13-18 | |
| 10월2일 | 금 | 마 26 | | 잠 19-24 | |
| 10월3일 | 토 | 마 27-28 | | 잠 25-31 | |
| 10월4일 | 주일 | 막 1-3 | | 전 1-12 | |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5)

■ 예배 및 집회

| 구 분 | 시 간 | 장 소 | |
|-----------|-----------------|------------|----------|
| 주 일 예 배 | I 부 예배 | 오전 9시 | |
| | II 부 예배 | 오전 11시 20분 | |
| | III 부 예배 | 오후 2시 | |
| | 찬 양 예배 | 오후 5시 | |
| | English Worship | 오전 11시 20분 | 8층(802호) |
| 수 요 예 배 | II 부 예배 | 오후 7시 | 웨스트민스터 홀 |
| 새 벽 기 도 회 | 오전 5시 30분(월-토) | 본당 | |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